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4 거래일 연속 급등 이후 상하방 요인 혼재 되며 혼조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8일(월) 미국 증시는 미중 협상 혼선, 화웨이 고성능 칩 출시로 인한 엔비디아(-2.1%) 약세 등 하방 요인과 미 재무부의 국채발행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, 빅테크 실적 기대감 등 상방 요인이 혼재 되며 혼조세로 마감(다우 +0.3%, S&P500 +0.1%, 나스닥 -0.1%).

현재 S&P500과 나스닥은 지난 4월 초 연저점에서 각각 10.1%, 13.7% 반등하며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. 월 중 내내 극단의 공포 영역(0~25pt)에 머물러 있었던 CNN의 Fear & Greed index도 28일 현재 37pt로 공포의 영역(26~50pt)로 올라오는 등 투자심리도 이전에 비해 호전된 상태.

이제부터는 관세 그 자체보다 여진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. M7 실적, 4월 고용, 5월 FOMC, 4월 CPI 등 다음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개별 실적, 개별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(ex: 관세 충격은 생각보다 강하며 지속력도 길 것이다 vs 관세 여진은 미미했으며, 실적,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과도했다). 또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 의지는 높지만, 여전히 협상 접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증시에 노이즈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, 당분간 증시 상단이 제한된 레인지 장세를 베이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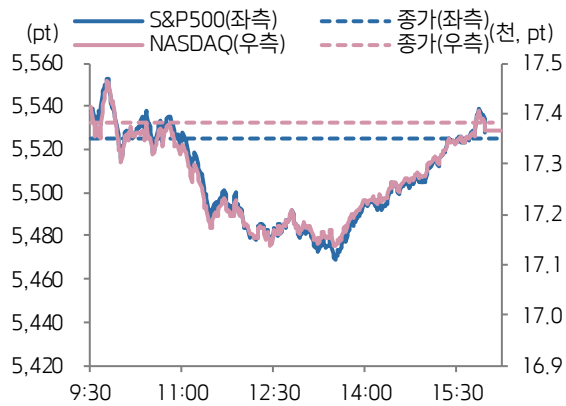
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나스닥의 1%대 강세, 미국 소비지표 개선 등 미국발 호재에도, 관세 불확실성 재확산 속 코스닥 중심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파로 전강후약 장세로 마감(코스피 +0.1%, 코스닥 -1.4%).

금일에는 미국 증시의 혼조세 여파, 주중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 속 삼성전기, 에코프로비엠, 하이브 등 국내 개별 실적 결과를 확인하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 업종 측면에서는 미 재무부 국채 발행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전일 급락한 바이오주들의 주가 되돌림을 만들어 낼 지 여부도 관건.

한편, 국내 증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에도, 4월 한달 동안 9.8조원 순매도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(-12.5조원) 이후 월간 최대 순매도를 기록이라는 점이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. 일간으로는 28일까지 20거래일 중 18거래일을 순매도하고 있으며, 순매도의 대부분을 반도체 등 IT, 화학, 철강, 자동차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. 이는 대외 수요 변화에 미국 등 여타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한국의 주력 업종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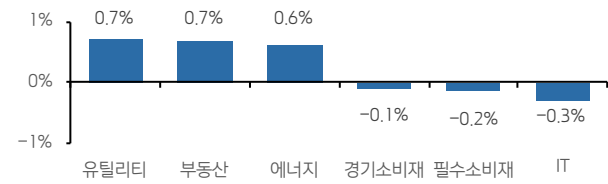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이들의 대규모 셀코리아에도, 유틸리티(20거래일 중 17거래일 순매수), 조선(11거래일), 상사, 자본재(9거래일), 호텔, 레저(18거래일), 소프트웨어(13거래일) 같은 업종은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. 이들 업종은 경기 방어 성격,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하는 업종이자, 실적 가시성이 반도체, 자동차 등 여타 업종에 비해 나은 업종에 해당. 따라서,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는 포트의 일부를 이 같은 외국인 순매수 플레이 복제에 활용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판단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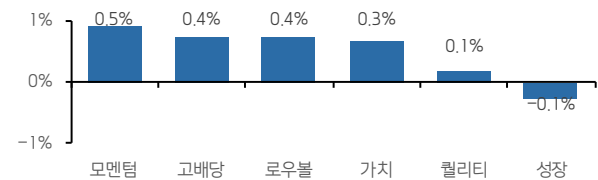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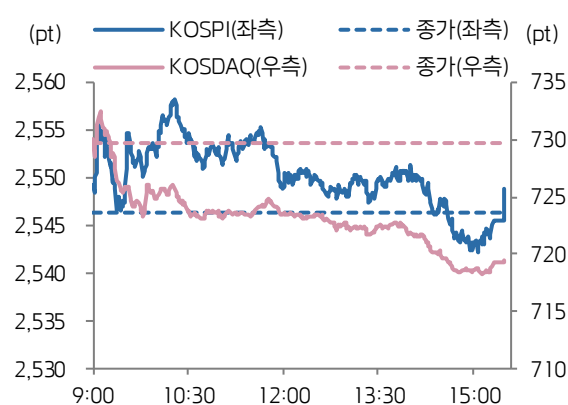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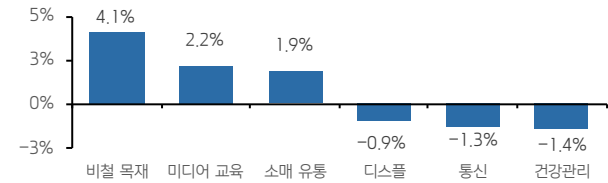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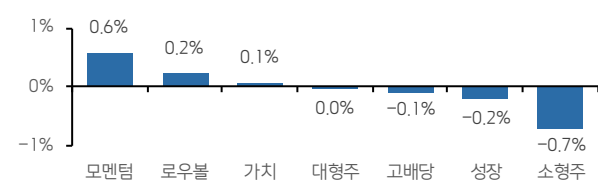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10.14	+0.41%	-15.99%	GM	47.24	+0.28%	-11.09%
마이크로소프트	391.16	-0.18%	-7.01%	일라이릴리	877.29	-0.82%	+13.83%
알파벳	160.61	-0.83%	-15.06%	월마트	95.22	+0.14%	+5.68%
메타	549.74	+0.45%	-6.03%	JP모건	243.22	-0.14%	+2.62%
아마존	187.70	-0.68%	-14.44%	엑손모빌	108.63	+0.06%	+1.89%
테슬라	285.88	+0.33%	-29.21%	세브론	140.10	+0.99%	-2.2%
엔비디아	108.73	-2.05%	-19.03%	제너럴일렉트릭	95.22	+0.1%	+5.7%
브로드컴	192.47	+0.08%	-16.73%	캐터필러	307.06	+0.2%	-14.64%
AMD	96.39	-0.26%	-20.2%	보잉	182.30	+2.44%	+2.99%
마이크론	78.56	-1.53%	-6.53%	넥스트에라	66.19	+0.2%	-6.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2,548.86	+0.1%	+6.23%	USD/KRW	1,436.80	-0.21%	-2.41%
코스피200	337.08	+0.06%	+6.06%	달러 지수	99.01	-0.46%	-8.74%
코스닥	719.41	-1.41%	+6.08%	EUR/USD	1.14	+0.48%	+10.3%
코스닥150	1,175.31	-1.67%	+4.03%	USD/CNH	7.28	-0.05%	-0.73%
S&P500	5,528.75	+0.06%	-6%	USD/JPY	142.01	-1.16%	-9.66%
NASDAQ	17,366.13	-0.1%	-10.07%	채권시장			
다우	40,227.59	+0.28%	-5.45%	국고채 3년	가격	DTD(bp)	YTD(bp)
VIX	25.15	+1.25%	+44.96%	국고채 10년	2.590	+1.2bp	-28.1bp
러셀2000	1,965.55	+0.41%	-11.87%	미국 국채 2년	3.693	-5.5bp	-54.9bp
필라. 반도체	4,235.62	-0.38%	-14.95%	미국 국채 10년	4.208	-2.7bp	-36.1bp
다우 운송	13,559.92	+0.47%	-14.69%	미국 국채 30년	4.682	-1.9bp	-9.9bp
상해종합	3,288.42	-0.2%	-1.89%	독일 국채 10년	2.521	+5.2bp	+15.4bp
항생 H	8,080.19	+0%	+10.84%	원자재 시장			
인도 SENSEX	80,218.37	+1.27%	+2.66%	WTI	가격	DTD(%)	YTD(%)
유럽, ETFs				브렌트유	65.86	-1.51%	-11.76%
Eurostoxx50	5,170.49	+0.32%	+5.61%	금	3,347.70	+1.49%	+24.35%
MSCI 전세계 지수	827.21	+0.3%	-1.68%	은	33.01	-0.02%	+12.87%
MSCI DM 지수	3,628.48	+0.28%	-2.14%	구리	484.05	+0.01%	+20.22%
MSCI EM 지수	1,102.57	+0.5%	+2.52%	BDI	1,373.00	+1.48%	+37.71%
MSCI 한국 ETF	55.65	-0.29%	+9.35%	옥수수	483.25	-0.46%	+3.09%
디지털화폐				밀	531.00	-2.57%	-6.76%
비트코인	94,506.03	+0.22%	+0.85%	대두	1,062.50	+0.31%	+2.68%
이더리움	1,786.67	-0.91%	-46.61%	커피	410.05	+2.55%	+32.9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4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